

중소기업의 부실 현황과 구조조정 과제

이병기 /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LBK@keri.org)



최근 중소기업 부문의 기업부실이 증대되고 있다. 부실기업에 대한 적절한 구조조정 없이 중소기업 부문에 자금이 공급되면 비효율적 경영 및 투자가 지속되고, 신생 중소기업의 진입을 막아 경제활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더구나 부실기업 비중이 커지고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경우에 경제 내의 자원 재배분을 통한 생산성 제고 기능이 마비되면서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한 일본을 보면 이 같은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부실기업의 존속은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점에서 부실기업의 정리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부실 수준과 부실 정도가 매우 크다. 중소기업은 매출액 영업이익률, 부채비율, 은행차입금 비율 등 경영성과나 재무구조 면에서 그 취약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부실 중소기업은 정상기업의 투자와 고용의 증가를 제약하는 ‘발목잡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 부문의 부실 수준을 낮추고 부실의 정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 부문의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부실기업의 정리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실채권이 활발히 거래될 수 있는 시장의 형성과 기업재무안정 PEF 등 자본시장을 활용한 구조조정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1. 문제제기

- 중소기업의 부실채권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 금융위기 이후 금융권의 부실채권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부실채권 비율도 급증
 - 중소기업 여신 부실채권 비율이 금융위기 전인 2007년도에 0.99%였던 것이 2011년에 3.23%로 급증¹⁾
-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낮고 부실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의 수익창출 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

* 본고는 필자의 보고서 『부실기업의 경제적 과급효과와 구조조정 시장의 활성화』, 한국경제연구원, 2011. 4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필자는 원내 독회에 참석해 유익한 의견을 주신 박사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2007. 1. 23 및 2011. 5. 2.

-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 중 중소기업의 생산성 증대는 대기업의 그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중소기업 효율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임.
- 부실기업에 대한 적절한 구조조정 없이 중소기업 부문에 자금이 계속 공급되면 비효율적인 경영 및 투자가 지속되고 경기회복도 지연될 가능성이 증대
-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한 일본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실기업을 계속 존속시키는 것은 향후 경제회생 및 장기 경제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본고는 중소기업 부실의 규모와 그 정도 및 부실 중소기업이 정상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후 부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

2. 중소기업의 부실 현황²⁾

- 부실 중소기업의 비중이 부실 대기업의 비중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상태
 - 1995~2009년 기간 중 부실기업의 비중은 평균 21.6%로 나타났으며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기간 중에 부실기업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1995~2009년 기간 중 전체 부실기업 중 부실 중소기업 비중은 88.6%, 부실 대기업 비중은 11.4%를 차지
 - 전체 표본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볼 때 부실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전체 표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부실 대기업이 대기업 전체 표본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업규모별 정상기업과 부실기업의 기업성과와 재무구조를 비교한 결과 부실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가 현저히 낮고, 또 중소기업 재무구조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기업규모 별로 측정된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 부실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부실 대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보다 현저하게 낮은 상태

2) 본 분석에서는 1995~2009년 기간 중 한국신용평가(주)의 외감기업 기업D/B를 사용하였으며, 부실기업 추정은 Fukuda and Nakamura(2010) 방법론을 이용한 것이다. Caballero et al.(2008)는 부실기업 또는 좀비기업을 현재의 부채수준 하에서 가장 신용도가 높은 기업에 적용하는 우대금리를 적용했을 때의 최소 필요이자 지급액보다 적은 실질이자 지급액을 지불하는 기업으로 정의하였다. Fukuda and Nakamura(2010)는 Caballero et al.(2008)의 부실기업 정의를 일부 수정하여 부실기업을 추정하였다. 즉 Caballero et al.(2008)의 부실기업 정의에서 EBIT가 최소 필요이자 지급액보다 큰 기업은 부실기업 범주에서 배제하고 EBIT이 최소 필요이자 지급액보다 작고 부채가 많은 기업은 부실기업 범주에 포함하였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이병기(2011) 및 다음의 두 논문을 참조. Caballero, R.J., T. Hoshi and A.K. Kashyap, “Zombie Lending and Depressed Restructuring in Japa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98(5), 2008, pp.1943-1977. Fukuda, S., and J. Nakamura, “Why did Zombie Firms Recover in Japan?,” University of Tokyo, CIRJE_F 751, July 2010.

- 1995~2009년 기간에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0%인데 비해 대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6.4%로 차이를 보임.
- 정상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약 6.0%로 나타났는데 비해 정상 대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7.2%로 나타나 정상기업 간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음.
- 그러나 부실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5.1%로 매우 낮은 반면에 부실 대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1.2%를 나타내어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표 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구 분	기업규모		부실여부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정상	부실	정상	부실	정상	부실
1995-1999	0.0650	0.0330	0.0717	0.0075	0.0751	0.0330	0.0632	-0.0458
2000-2004	0.0736	0.0405	0.0780	-0.0056	0.0851	0.0134	0.0592	-0.0539
2005-2009	0.0568	0.0428	0.0629	-0.0278	0.0645	-0.0138	0.0583	-0.0548
1995-2009	0.0635	0.0398	0.0691	-0.0083	0.0726	0.0116	0.0596	-0.0512

- 또한 중소기업, 특히 부실 중소기업은 비교대상인 대기업과 정상 중소기업에 비해 열악한 재무 구조를 나타내고 있음.
 -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은 대기업에 비해 매우 높고, 부실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은 더욱 높은 상태임.
 - 중소기업의 은행차입금 비율은 대기업에 비해 높고, 부실 중소기업의 은행 차입금비율은 부실 대기업의 은행차입금 비율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은행의 부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부실 중소기업은 정상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 경영성과가 매우 저조한 반면, 부채비율이나 은행차입금 비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재무비율 추이

구 분	기업규모		부실여부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정상	부실	정상	부실	정상	부실	
부채비율	1995-1999	0.7272	0.8462	0.6973	0.8712	0.6841	0.8081	0.7354	1.0386
	2000-2004	0.5898	0.7122	0.5683	0.8285	0.5512	0.7663	0.6296	0.9958
	2005-2009	0.5436	0.6592	0.5414	0.7678	0.5195	0.7277	0.6161	0.8450
	1995-2009	0.6008	0.7229	0.5803	0.8279	0.5604	0.7734	0.6463	0.9586
은행차입금 비율	1995-1999	0.4611	0.5310	0.4134	0.6013	0.4082	0.5607	0.4284	0.7090
	2000-2004	0.3364	0.3980	0.3092	0.5262	0.3039	0.4847	0.3282	0.6379
	2005-2009	0.2596	0.3841	0.2607	0.4787	0.2349	0.4475	0.3482	0.5386
	1995-2009	0.3300	0.4266	0.3052	0.5434	0.2886	0.5071	0.3605	0.6303

주 :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은행차입금 비율=은행차입금/총자산

3. 부실기업의 정상기업 ‘발목잡기’ 현상

-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표본과 대기업 표본에서는 ‘발목잡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 중소기업 표본에서 ‘발목잡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부실기업이 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나타나지 않는 반면, 중소기업의 부실이 정상기업의 고용 및 투자를 억제하는 효과는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부실 중소기업의 비중 증가는 당해 산업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정상 중소기업의 투자와 고용성장을 억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임.
 - 중소기업 부문에서는 부실기업이 정상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줄이는 효과, 즉 ‘발목잡기’ 현상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
- 부실 중소기업의 퇴출이 지연되어 산업 내 부실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우 신규 중소기업의 진입이 억제되고 고용과 투자가 제약을 받게 되어 기존 기업의 생산성이 저하됨은 물론 부실기업과 정상기업 간의 소모적인 과당경쟁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커짐.

4. 결론 및 정책과제

- 현재 중소기업 부문은 기업부실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 있고, 부실 중소기업이 정상기업의 투자고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태임.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은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채권자 주도에 의한 기업구조조정,³⁾ 사모투자펀드(private equity fund; PEF) 등 자본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업구조조정, 통합도산법 등 법원이 주도하는 기업구조조정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 중소기업은 다수의 산업에서 활동하고 있고 처한 환경도 상이하기 때문에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여 구조조정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소기업의 부실이 효율적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민간 부실채권이 활발히 거래될 수 있는 시장 형성이 선결되어야 함.
 - 민간 부실채권 시장을 활성화하여 은행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3)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의한 경영정상화 작업은 대상 기업규모가 다르다는 점을 제외하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근거한 경영정상화 작업과 그 절차가 동일하다.

- 향후 부실 중소기업의 탐지와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시스템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⁴⁾
 - 그동안 부실채권 시장이 형성되지 못했던 원인은 부실채권 공급자인 은행이 부실채권을 현가에 매각하거나 채무탕감을 통해 부실채권을 시장에 공급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 따라서 부실채권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실채권 공급기반 정비가 필요하며, 은행이 부실채권을 현가에 매각하거나 출자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채권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은행과 부실여신을 발생시킨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면책하는 등 면책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고의로 발생한 부실과 구분할 필요가 있음.
- 규모가 비교적 큰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은 기업재무안정 PEF를 활용하여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며,⁵⁾ PEF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가 필요
 - 기업재무안정 PEF의 결성이 그동안 매우 저조한 상태였으나, 최근 부동산PF 처리를 위한 배드뱅크 설립 및 한국정책금융공사 등 기업재무안정 PEF 제도를 활용한 구조조정 PEF 결성이 증가하는 추세
 - 기업재무안정 PEF가 재무적 투자 및 전략적 투자를 현재보다 활발하게 추진하고 외국의 PEF에 대응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PEF의 자산운용에 대한 제약을 좀 더 완화할 필요
 - 사모펀드의 특징인 규제 최소화 및 자유로운 투자를 제약하는 차입제한 등 운용규제의 완화
 - 사모펀드는 적격투자자 및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소수투자자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투자자 보호차원의 금융규제는 완화
- 중소기업 부문에 존재하고 있는 기업부실을 줄여나가기 위해 부실채권 시장의 활성화 및 기업재무안정 PEF 제도 활용 등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4) 주로 최근 3년간 연속 이자보상비율 1 미만인 기업, 최근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마이너스인 기업, 부실징후 및 조기경보 기업 등을 대상으로 부실 여부를 평가하여 구조조정한다.

5) 기업재무안정 PEF 제도는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인수하거나 궁극적으로 부실기업 자체를 인수하고 구조조정하여 기업회생 및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상화를 도모하는 기구로 금융기관 채무액이 200억 원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은 PEF 등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가 담당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강동수, 『중소기업의 부실 현황 및 구조조정 방안』, 연구보고서 2004-08, 한국개발연구원, 2004 참조.